

# 이민자(移民者)의 등불

김동일/방재설비부장·소방기술사

이민을 대표하는 도시 뉴욕의 3대 명물로서 △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△브루클린 다리 △자유의 여신상을 꼽는다.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은 오랜 세월을 걸쳐 세계 최고의 건물로 각인된 초강국 미국의 자부심이지만, 1930년대 경제공황 때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건설한 것으로 전해지는 브루클린 다리는 부자나라 미국의 아픈 과거이기도 하다.

자유의 여신상(Statue of Liberty)은 신생국 미국 땅에서 영국을 몰아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1백주년을 기념하여 1886년에 기증한 것인데 이 여신상의 받침돌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.

「자유를 갈망하는 억압받은 사람들이여 피곤과 가난은 나에게 맡기고 오라. 이 풍요의 해안에 닿은 뒤의 어려움은 내게 의지하고 보금자리에 대한 걱정이나 정신적 안식 또한 내게 맡겨라. 나는 황금의 문 곁에서 등불을 높이 드노라.」

뉴욕 항 입구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는 이민자들에게 곧 희망이었다.

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 미국이 그 큰 힘을 남용할 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햇불을 높이 든 자유의 여신상과, 세계 각국에서 마치 “우리의 민요”처럼 사랑받는 “산골짜クの 등불(When its lamp lighting time in the valley)”이 있는 나라 미국은 이렇듯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꿈과 안식을 준 나라이기

도 하다.

“신세계” 미국에 맡김과 의지의 등불이 있다면 한 때 몹시도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에는 보냄과 기다림의 등불이 있다.

200여 년의 긴 세월을 영국의 통치하에 지냈지만 지금은 개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3만 달러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는 “켈트해의 호랑이”로 칭송받는 나라, 아일랜드의 대통령 집무실 창문에는 365일 등불이 매달려 있는데 이는 질병으로, 기아로 인구의 1/3이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땅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을 위한 마음의 등불, 즉「이민자의 등불」이라고 한다. “타향살이에 지친 형제들이여 고국 아일랜드는 매순간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...”

아득한 산골짜/작은 집에/아련히 등잔불/흐를 때  
그리운 내아들/돌아올 날/높으신 어머니/기도해  
그 산골짜에/황혼 질 때/꿈마다 그리는/나의 집  
희미한 불빛은/정답-게/외로운 내발길/비치네,

고사(故事)에 얽힌 불 이야기를 쓰며 “산골짜クの 등불”을 떠올림에, 자칫 삭막하기만 한 불의 세상에서 이렇듯 “아늑하고 아련한 휴식”은 사치일까?